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색동저고리

성경: 창세기 37장 18-28절

Tag:

18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19 서로 이르되 꿈 꾸는 자가 오는도다

20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21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22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던라

23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24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던라

25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에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26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27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중하였더라

28 그 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이십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창37:18-28)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

채색옷은 우리나라 말로 색동저고리다.

한복도 요즘 부는 한류 덕분에 유명해지고 있다.

내 친구 중 한명은 계량 한복을 입고 사는데, 그게 그렇게 편하단다.

멋도 있고 편하기까지 하니, 얼마나 좋은가. (비쌌)

야곱은 특별히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우선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야곱 자신은 누가 뭐라해도 요셉이 내 마음속에 장자라는 명시적 선언이었다.

그러니 너희 11형제는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지 말라는 의미가 들어 있었다.

이것은 또 경제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유산 중에서 장자의 몫이 다른 자녀들보다 두 배라는 뜻이다.

야곱은 로맨티스트였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딱 한명 뿐이었다. 그 여인은 라헬이었다.

그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 요셉이었다.

야곱은 아내를 지극히 사랑했다.

아마 추측컨대 예뻐할 것이다. 어떤 남자들은 예쁘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 특성이 있다. 사실 예쁘다는 것에는 가치가 있다. 그것은 특별히 존귀해 보인다는 점이다.

미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존귀하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 된다. (외모가 뛰어나도 스스로의 존귀함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들의 삶은 파멸에 가깝다.)

사람은 본성상 존귀함에 대한 갈망이 있다. 존귀함에 대한 갈망은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표현된다.

존귀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자신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꽃피게 된다.

야곱의 경우, 라헬을 보면서 그런 경험을 하였다.

그러나 현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거나 로맨틱하지만은 않다.

라헬에게는 아버지가 있었고, 라헬을 보는 눈빛이 빛나고 있는 청년 요셉을 보면서 라헬의 아버지 라반의 눈빛도 동시에 빛났다.

요셉이 라헬과 결혼시켜 달라고 할 터인데 나는 무어라 말해야 할까.

엄밀하게 따진다면 요셉은 한 명의 일꾼에 불과하다. 다만, 여동생의 아들인 셈이다. 그렇다고 거지에게 딸을 줄 수는 없는 일.

라반에게는 눈이 밝지 않는 딸도 있었다. 아마 완전히 시력을 잃거나 하지는 않았을 거 같은데, 약한 시력 때문에 제대로 시집갈 수 없다는 것을 라반도 잘 알고 있었다.

라반은 아무도 모르게 야곱을 이용해야겠다는 계락을 꾸민다.

야곱은 스스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무임 봉사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 정도면 장인영감이 거절치 못하리라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 야곱은 누구보다 축산업에 소질이 있었다. 라반은 평생이라도 야곱과 함께 하고 싶었을 것이다. 라반은 흔쾌히 수락하였고, 야곱은 7년을 수일같이 지냈다. 왜냐면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로 얻기 위한 수고였으니, 일하는 것이 곧 행복이요, 삶의 의미였다.

남자는 사랑 앞에서 단순하다. 야곱은 순전하기까지 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약속한 결혼식이 다가왔다. 일부러 라반은 그믐날을 선택했고, 저녁 늦게 결혼식을 올렸고(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녁에 결혼식을 올리는 풍습이 생겼는지 모른다.) 라반의 신부 바꿔치기가 이루어진 날

이었다.

칠흙같이 캄캄한 속에서 야곱은 신혼초야를 보냈고, 레아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아침을 맞이하였다.(레아의 못이기는 척함. 두 부녀의 속임수) 아침에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첫날밤을 지낸 아내는 사랑하는 여인이 아니었다. 야곱이 느낀 배신감은 죽어도 잊지 못할 것이다.

라반은 뻔뻔하였다. 우리 지역 풍습은 언니 먼저 시집가는 것이 풍습이란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고,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지만, 라반이 갑이고 야곱은 을이었다.

라반은 7일간만 레아와 자고, 7일 후에는 라헬도 아내로 맞이하여라. 그리고 지금까지 일한 품삯은 레아를 위한 것이니 라헬을 위해서 7년 더 일하면 된다고 했다.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사기계약에 사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생각하기에 야곱이 요셉에게 색동저고리를 해 입힌 이유는 결혼식 사건에 대한 보복심리가 컸을 거라고 본다. 자기를 속인 레아와 그 자녀들에게 대한 복수인 셈이다.

라헬도 언니가 내 남편을 빼앗아 갔다고 생각하였다. (긴밤 남편을 기다리다 잠깐 존 것이 곧 아침이었다)

두 자매간에 있었던 아들낳기 쟁탈전은 오늘 언급하지 않기로 하자. 양이 많은 것 보다, 자녀가 많은 것이 곧 부자였던 시절이었다. 한 자녀가 키워 낼 수 있는 양은 수천마리다. 양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품군도 많이 거느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창세기의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의 윤리적 잣대로 가늠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다만 사람의 윤리는 정치 사회 경제적 목적을 위해서 시대를 따라 변하게 된다. 성경은 그런 윤리가 어떤 결과를 개인과

가정과 사회에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 증언할 뿐이다.

성경을 기초로 한 기독교 윤리가 중요한 것은 그 윤리가 결국 개인과 가정과 사회를 행복하게 하고, 유지하게 한다는 점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 모든 상황을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진행된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을 중심으로 일하신다. 그래야 그 증언들이 스토리가 되어 후대에 전달되기 쉽기 때문이다.

아무튼 색동저고리 이야기는 야곱의 특별한 배려 가운데 시작된다. 아마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임신 소식이 야곱을 흥분 시켰을 것이다. 어느 아들의 출산보다 야곱에게는 인상적인 임신이고, 출산이었을 것이다. 그는 날마다 아내의 배를 쓰다듬으며 축복하기를 아끼지 않았을 것이다.

이미 그때쯤 큰 아들은 장성해서 집안일을 돌보는 시기였을 것이고, 야곱도 나이가 들어 젊었을 때보다 아들 얻기에 능숙한 아버지가 되어 있었다. 이 점이 요셉에게는 큰 복이 아닐 수 없다.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우리나라에는 태교를 중시하는 전통이 있다. 태교와 육아가 지극정성이다. 우리민족의 우수성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개와 늑대의 유전자는 같지만, 태어난지 15일 이내에 발달 스위치가 어떻게 켜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유전자는 같더라도, 그 유전자의 스위치가 어떻게 켜지느냐는 양육에 달려있다. 어려서 켜진 어떤 스위치는 그 아이의 인생을 좌우하는 경우도 있다.

마약이 왜 나쁜가? 켜지지 말아야 할 스위치가 켜지기 때문이다.

아브라함 이후로 이삭과 야곱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한 영적인 스위치가 있는데, 야곱이 요셉을 품고 양육하는 동안 요셉에게 이 영적인 스위치가 켜진 셈이다. 이 스위치는 일련의 다른 영적 스위치도 켜지는 행운을 안게 하는데, 그의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꿈을 꾸게

되고, 예언적 스위치도 켜졌다는 데 있다. 하나님이 바라던 진정한 양육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진 셈이다.

야곱의 모든 아들이 존귀한데, 오직 야곱의 지극한 사랑과 양육이 요셉의 영적 스위치를 작동하게 하였다. 그나마 다행인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인가?

이후 요셉은 폭풍성장을 거듭하게 되는데, 너무 놀라운 성장으로 인해서 야곱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지경이었다.(꿈 이야기) 결국 이런 우수성은 형들의 시기를 불러오게 되었고, 급기야 색동저고리는 형들의 마음속에 불을 지르는 효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요셉이 심부름을 다닐 수 있을 만큼 성장했을 때 야곱은 드디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켰다. 요셉은 형들을 만날 기대감에 부풀어 열심히 형들을 찾아 다녔지만, 정작 형들은 꼴사나운 잘난쟁이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 있었다.

이름은 거론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시므온과 레위가 주동이 되어 저놈 죽여버리자고 했을 것이다.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자 만형 르우벤이 나섰다. 죽이지는 말고 구덩이에 가둬두자. 나중에 몰래 빼돌려 아버지에게 보낼 작정이었다.

르우벤이 일하러 나갔을 때 분위기는 더 심각해졌다. 그러나 마침 이스마엘 사람들이 각종 상품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유다는 기지를 발휘하여 요셉을 저들에게 종으로 팔자고 제안했고, 큰 돈을 만질 욕심으로 모두 찬성하여 요셉은 애굽에 종으로 팔리게 되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섭리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하나님은 악한 형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맞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최악 때문에 좌절되는 게 아니다.

그렇다고 형들의 악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 하나님은 악행을 통해서도 뜻하시는 바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신앙고백이지, 꼭 악행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악행은 필요조건도 충분조건이 아니다.

만약에 요셉이 잘 성장했다면, 그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로 야곱이 거부가 되었을 것이고, 요셉은 무역차 애굽에 갈 수 있었을 것이고, 보디발의 집과 무역을 하였을 것이고, 요셉의 뛰어난 능력을 알게 된 그는 바로왕에게 그를 접견토록 했을 것이다.

형들이 요셉을 팔지 않아도 요셉은 결국 바로왕을 만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것이다. 그 또한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로 인한 결과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저주를 받을 뿐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깨우고, 우리 영혼의 스위치를 켜준다. 그 영혼에 스위치가 쳐진 자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된다.

영혼의 스위치가 켜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하소서.



〈찬양예배〉

제목 : 조던 피터슨의 '질서 너머'

성경: 누가복음 6장 1-11절

Tag:

1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2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4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5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6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7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8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9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10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11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눅6:1-11)

조던 피터슨. 캐나다인. 1962년생. 현재 60세.

- 청소년 시절 좌익계역 신민주당에서 봉사.
- 18세에 신민주당을 떠남. 앨버타 대학에서 정치학 학사
- 냉전 시기에 유럽을 여행하면서 핵공포로 인한 전체주의를 체험하면서 심리학을 전공하는 계기가 됨. 후에 임상심리학 박사.
- 1989년 소싯적 이웃집 아이. 태미 로버츠와 결혼.
- 2019년 항불안제 중독 증세로 입원
- 2020년 1월 러시아 병원에 입원. 중독 재활치료.
- 2020년 10월 다시 본업에 돌아옴.

피터슨은 정치적 올바름에 관련된 많은 문제, 특히 페미니즘, 탈근대주의, 부의 재분배, 백인 특권(White privilege), 문화적 전유(Cultural Appropriation), 환경주의 등에서 현대 자유주의자들의 관점을 비판하고 있다.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대학의 책임이 크다. 그는 이런 사상이 마스주의와 공산주의의 연장선 상에 있다고 본다.

-여성학이 신마스주의에 잠식되었다고 주장 정부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

-이념화된 학문분야를 성토. 학문의 가면을 쓴채 비과학적 방법론과 사기에 가까운 동료평가. 출처불분명 문헌 인용.

-지구 온난화. 인류에게는 대책이 없다.

-모든 대책은 수포로 돌아갔고, 오히려 탄소 배출량을 더 늘려 놓았다.

\*질서 너머 2021.4.4. -인생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12가지 법칙

법칙 1. 기존 제도나 창의적 변화를 함부로 깎아내리지 마라

법칙 2. 내가 누구일 수 있는지 상상하고, 그것을 목표로 삼아라

법칙 3. 원치 않는 것을 안개 속에 묻어두지 마라

- 법칙 4. 남들이 책임을 방치한 곳에 기회가 숨어 있음을 인식하라
- 법칙 5.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지 마라
- 법칙 6. 이데올로기를 버려라
- 법칙 7. 최소한 한 가지 일에 최대한 파고들고, 그 결과를 지켜보라
- 법칙 8. 방 하나를 할 수 있는 한 아름답게 꾸며보라
- 법칙 9.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기억이 있다면 아주 자세하게 글로 써보라
- 법칙 10. 관계의 낭만을 유지하기 위해 성실히 계획하고 관리하라
- 법칙 11. 분개하거나 거짓되거나 교만하지 마라
- 법칙 12. 고통스러울지라도 감사하라

당신이 추구해야 할 것은 책임이다. 행복이 아니다.

-세상을 타하기 전에 방부터 청소하라. 그리고 그 방을 아름답게 꾸며라.

-상상하는 최고의 모습이 되어라.

-초보자가 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책임을 피하는 직장상사를 기회로 삼으라.

-깨어 있는 척 하는 사람들에게 당당히 맞서라.